

「불량녹용파장」 국회로 확산 조짐

-복지위원 복지부에 구매실적 등 자료요구-

최 근 불량녹용 유통사태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어 중간 소비자인 한의약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불량녹용이 적발되면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한방병·의원 등 투약기관으로 전가돼 이들 기관의 한약재 구매방식을 보다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녹용 등 불량한약재가 기승을 부리자 최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한방병·의원 등 한약관련기관의 녹용 구매기록을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하고 있어 불량녹용 문제가 올 국정감사에서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녹용은 대략 300톤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 약 80%가 우리 나라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녹용은 의약품이면서도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이밖에도 관세 등이 수입금액의 50%에 달해 업계 일각에선 밀수품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회분율을 기준으로 한 녹용류 명칭 역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시행되다보니 관련 업계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을 이용해 수입업자들은 통관 후 검사에서 불합격된 제품을 반품 또는 폐기처분하기 보다는 시중에 유통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얼마전 식약청의 2000년도 상반기 특별약사 감시와 인천지방 경찰청의 수사결과는 한약

재, 특히 녹용의 유통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녹용유통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밀수품과 무허가제조, 통관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을 그대로 유통하는 것 등이다.

전문가들은 한방의료기관 등이 무자료 거래를 원하는 것 자체가 밀수녹용이나 불량녹용의 유통을 돕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중량을 늘리기 위해 소금, 설탕 등 이물질질을 투입하거나 공업용 알코올 사용, 다른 동물의 피를 섞는 행위 등은 무허가 제조업소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만큼 믿을 수 있는 제조업소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녹용을 구입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국회 복지위의 일부 의원들은 국내에 반입된 녹용과 녹용각의 수입과 한방의료기관 등의 구매실적 등을 근거로 어떤 명칭으로 처방을 내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수입녹용 부정유통
「1588-8112」로 신고!

녹용 등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행위를 발견할 시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국 87개 농산물원산지 부정 유통신고센터의 신고전화를 1588-8112로 통일화하고 24시간 신고접수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